

중국 내 한국학 연구에 관한 분석

1998년-2010년의 CSSCI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충휘 중국 천진외국어대학교 부교수

목 차

- 一. 들어가기
- 二. 분석 데이터와 방법
- 三. CSSCI에 수록된 한국학 논문 현황에 대한 분석
- 四. CSSCI를 통해 본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의 특징
- 五.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의 발전 추이
- 六. 나오면서

Abstract: Nowadays, as the opening up of China and the developing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 Korean Studies is facing its new period and has grown into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earch fields in China's Regional Studies. In order to boost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China and serve China-Kore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y using bibliometrics metrology, this paper analyzes thesis on Korean studies in CSSCI database from 1998 to 2010 from the aspect of the thesis's total amount, their frequency of being cited, the proportion of cooperative thesis, the distribution of author's institution, the distribution of the first 10 units that published the thesis,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first author, the distribution of the top 10 periodicals in circulation and publication. By analyzing the scale and quality of the thesis, the distribution of the authors and the publishing periodicals,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 of Korean Studies in China, and bring forward reasonable suggestions for its future redevelopment.

Key words: Korean studies in China, CSSCI, current situation, problem, suggestion

이충휘, 중국 천진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 관심분야: 한국학, 한국정치. 메일: lisan26xiao@hotmail.com

一. 들어가기

한국학은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학술분야이다. 1992년 중, 한 수교 이래 중, 한 두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의 교류에 따라 중국 내의 한국학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국 국내 대학교에 4년제 한국어과정이 개설된 학교가 113개나 되고, 한국문제연구소가 60여개나 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논저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학 연구의 범주도 정치, 경제, 관리학, 법학, 교육, 언어, 문학, 예술, 역사 등 분야에서 체육, 지리, 의학 등 학술 분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학 연구가 중, 한 두 나라의 교류에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중, 한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의 수립에 따라 중, 한 두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군사, 교육 등 다분야에서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다. 아울러 중국 국내의 한국학 연구가 어떻게 중, 한 관계 발전에 걸맞게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과제는 중국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학자들의 관심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다른 학문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학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중국내의 한국학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중국내의 한국학 현황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다. 그 중에 연변대학교의 이득춘교수와 채미화교수, 복단대학교의 석원화교수 등의 논저들은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들 연구는 중국 내의 한국학의 범주, 발전단계, 연구자, 연구기관, 연구성과 및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의 제한으로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 현황 규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즉 이들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하여 중국내의 한국학 연구의 수준과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인 규명이

불가능하였다. 이런 문제들은 중국내의 한국학 연구 현황 파악에 저해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중국 국내의 한국학 연구 수준과 문제 등 현황에 대해 과학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내 한국학 연구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분석을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국내의 한국학 연구 현주소의 파악에 있어 양적 연구방법을 도입해야 하고, 더 일관성 있는 연구대상이 있어야 한다.

二. 분석 데이터와 방법

상술한 연구목적과 방법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통계학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1989년-2010년의 CSSCI에 수록된 한국학 연구논문들을 연구 분석 데이터로 사용한다^①. 중국의 CSSCI는 “중국어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이다. CSSCI는 1998년에 중국 난징대학교에서 개발된 중국 정부의 논문인용색인으로서 수록된 학술지나 논문이 모두 중국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최고 수준을 대표한다. 또 CSSCI에 등재된 학술저널의 수량은 중국의 사회과학학술저널 총량의 8-15%에 불과하다. 그래서 CSSCI는 논문색인 및 학과, 저널, 연구기구 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중요한 인문사회과학문헌색인데이터 베이스다[1]. 현재까지 CSSCI는 저자정보, 인용빈도, 영향인자, 저널 영향 범위, 지역분포 등 많은 데이터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1998년-2010년의 CSSCI를 통해 검색해 낸 2232개 한국학 연구논문들로 한국학연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998년-2010년의 한국학 연구논문의 연도별 인용상황, 연도별 논문발표 수, 저자 소속기관과 지역, 가장 많이 실린 학술지, 논문 가장 많이 발표된 기관 등을 통계함으로써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의 양과 질, 연구자, 학술지 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내 한국학 연구의 현주소를 고찰하고 한국학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도 더불어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중국내의 한국학 연구 성과의 일부에 불과하나,

^① 2011년도의 학술논문은 아직 CSSCI에 모두 수록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데이터가 CSSCI 등재지에 수록된 논문이기 때문에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 수준을 밝히고, 중국내의 한국학 현주소를 조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三. CSSCI에 수록된 한국학 논문 현황에 대한 분석

중국 국내 한국학 연구에 대한 분석은 주로 한국학 연구의 범위, 규모, 수준, 연구자, 한국학 논문 게재 저널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본 글은 한국학 연구의 학술논문, 연구자(저자) 및 논문 게재 CSSCI 등재지 등 3개 분야를 통해 중국 국내 한국학 연구의 현주소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 중에 각 분야의 논문 총량 및 피인용 회수, 합작논문의 비중, 논문의 내용, 연구자의 분포, 논문 게재 CSSCI 등재지의 종류와 한국학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10 종 CSSCI 등재지 등이 통계분석의 세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 CSSCI에 수록된 한국학 논문에 대한 분석

학술 논문에 대한 분석은 한 학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중에 논문의 량과 질 두 개의 요소가 포함된다. 한국학은 중국 내에 인문사회 전 분야를 걸친 학과로서 그의 량과 질은 불규칙적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한국학 분야의 학술 논문에 대한 분석은 한국학 내의 각 분야를 모두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 본 글은 한국학 내의 각 분야의 학술 논문의 총량, 피인용 회수, 합작 현황 및 내용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가. 한국학 논문 수량에 대한 분석

CSSCI에 수록된 한국학 각 분야의 학술 논문은 해당 학술분야의 최고 수준을 대표한다. 표1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분야별 논문 게재 수량 통계표이다. 표1에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CSSCI에 수록된 한국학 학술논문의 총량은 2232편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그 중에 관리학, 경제학, 역사학, 정치학, 교육학 분야의 논문은 가장 많고 논문 총량의

70.47%를 차지한다. 이것은 이런 학과들과 관련된 한국학 연구가 이미 중국 내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표1에서 법학, 예술학, 사회학의 논문 수량은 데이터베이스의 1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마다 증가세로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언어, 문학, 체육, 철학, 도서관학, 정보통신학 등 분야의 논문 수량은 데이터베이스의 1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마다 변화가 크지 않다.

표1: 분야별 한국학 논문 수량 통계표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계
정치학	5	5	22	17	8	30	16	23	27	30	15	24	30	252
경제학	56	42	28	22	35	33	25	39	40	26	22	18	18	404
철학	7	2	7	5	5	7	4	5	7	11	13	8	3	84
언어학	7	14	3	6	5	5	5	6	8	7	6	6	15	93
사회학	8	6	5	4	4	10	14	9	12	7	10	6	17	112
문학	6	8	5	5	9	6	8	18	5	9	8	18	29	134
체육학	1	1	2	0	2	3	1	0	1	1	3	2	3	20
도서관학	2	1	1	2	1	1	1	2	2	2	3	3	2	23
관리학	35	19	21	10	20	26	32	29	47	59	62	39	22	421
정보통신학	1	4	2	5	1	2	3	2	5	6	4	2	5	42
교육학	6	6	1	13	7	12	13	24	18	21	14	16	17	168
예술학	2	4	6	2	7	6	5	7	25	1	5	5	8	83
법학	1	1	0	1	5	3	4	2	3	7	11	11	12	61
역사학	26	11	28	24	20	16	17	31	26	22	38	27	42	328
기타	2	0	0	1	0	1	1	0	0	1	0	0	1	7
총계	165	124	131	117	129	161	149	197	226	210	214	185	224	2232

나. 한국학 논문의 질에 대한 분석

CSSCI에 수록된 한국학 논문의 피인용 회수는 한국학의 현주소를 조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2는 CSSCI에 게재된 한국학 각 분야의 논문의 피인용 회수가 나타나는 통계표이다. 표2에서 2232편의 한국학 논문은 총 피인용 회수가 1033회가 되고, 편마다 평균 피인용 회수가 0.463회가 된다.

또 총 피인용 회수와 편 평균 피인용 회수는 해마다 증가세로 나타났다^①. 그 중에 관리학,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등 분야의 논문 피인용 회수는 1-5위를 차지하고 총 피인용 회수의 79.77%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은 표1에서 나타난 논문 수량 변화와 일치하며 논문의 양적, 질적으로 정비례관계가 나타난 것을 입증해 주었다. 이 밖에 관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체육학, 법학 등 분야 논문의 편 평균 피인용회수는 데이터베이스의 편 평균 피인용 회수보다 높다. 이런 현상은 이런 분야 논문의 질은 다른 분야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2: 분야별 논문의 피인용 회수 통계표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계
정치학	0	0	9	11	2	36	15	30	13	17	9	10	1	153
경제학	23	0	13	13	22	21	14	21	26	31	10	5	4	203
철학	1	0	1	0	0	1	1	1	2	1	1	0	0	9
언어학	1	3	0	2	7	2	3	1	2	2	1	1	1	26
사회학	0	0	2	2	3	8	12	7	8	15	6	3	2	68
문학	0	0	1	2	1	2	3	5	2	2	0	0	3	21
체육학	0	0	4	0	3	0	0	0	1	0	3	1	0	12
도서관학	0	0	1	2	3	0	0	0	0	0	0	1	0	7
관리학	5	0	14	9	11	33	48	22	55	39	34	13	1	284
정보통신	0	0	0	3	0	0	5	1	1	0	0	0	0	10
교육학	1	0	0	11	2	7	12	7	5	4	3	6	2	60
예술학	0	0	3	0	5	3	1	2	6	2	0	4	1	27
법학	0	0	0	1	4	6	3	0	3	4	13	1	0	35
역사학	1	0	16	6	7	7	8	15	17	20	11	6	2	116
기타	0	0	0	0	0	1	1	0	0	0	0	0	0	2
총계	32	3	64	62	70	127	126	112	141	137	91	51	17	1033

다. 합작 한국학 논문의 비중

합작 연구는 연구 성과의 질과 관련이 있다. 한국학 연구는 많은 학술 분야가 포함된 학과로서 합작논문의 비중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표3은 각 분야

^① 표에서 08, 09, 10년 논문의 피인용 회수는 좀 낮는데 이는 주로 피인용반쇄기와 관련이 있다. 이런 논문들의 피인용 회수는 나중에 증가할 수 있다.

합작논문의 비중을 나타내는 표이다. 표3에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582편의 합작논문이 CSSCI에 수록되었고, 총 논문량의 26.08%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을 분기점으로 그 전에 해마다 30편 정도 나타나고, 그 이후로 해마다 60편 정도 나타났다. 그중에 관리학, 경제학, 교육학, 정치학, 역사학 등 분야의 합작논문이 가장 많은데 각각 1-5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한국학 논문의 합작 비중이 논문의 질과 정비례관계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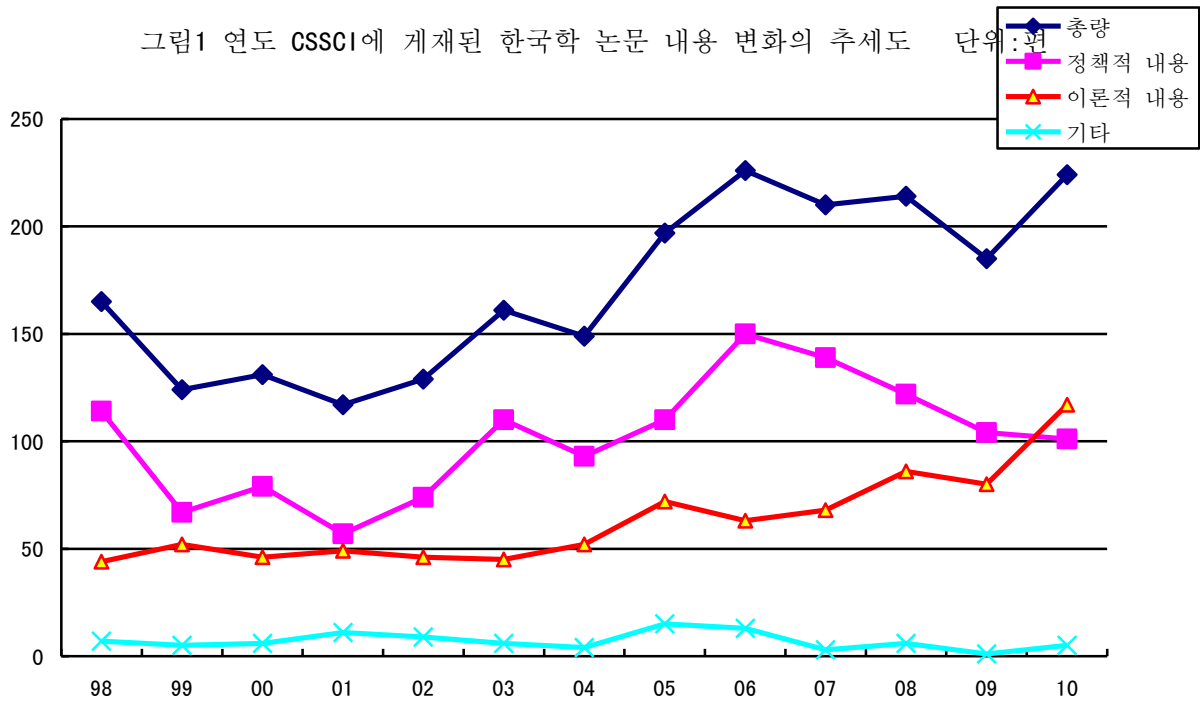
표3 분야별 합작 논문의 비중 통계표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계
정치학	2	3	2	4	0	2	2	4	3	8	3	6	5	44
경제학	8	18	8	6	11	6	11	16	15	10	6	9	9	133
철학	0	0	0	0	2	0	0	0	0	2	3	1	1	9
언어학	0	0	1	1	1	0	0	1	0	2	0	1	2	9
사회학	2	2	0	0	0	3	3	2	1	3	3	4	5	28
문학	0	0	0	0	0	1	1	2	0	1	1	2	2	10
체육학	1	0	1	0	2	1	0	0	0	0	3	1	1	10
도서관학	0	0	0	1	0	0	0	1	1	0	0	0	2	5
관리학	10	6	5	5	5	10	10	12	22	24	34	20	11	174
정보통신	0	4	0	0	1	0	2	2	2	3	1	0	4	19
교육학	0	0	0	3	3	4	6	14	8	6	5	9	10	68
예술학	0	0	1	0	1	0	1	1	3	0	0	0	0	7
법학	0	0	0	1	1	1	1	0	2	0	2	4	5	17
역사학	6	1	2	0	0	1	2	9	1	2	6	7	7	44
기타	2	0	0	0	0	0	1	0	0	1	0	0	1	5
총계	31	34	20	21	27	29	40	64	58	62	67	64	65	582

라. 한국학 논문 내용 변화 분석

논문의 내용은 크게 정책성 내용과 이론적 내용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1은 CSSCI에 게재된 한국학 논문 내용 변화를 나타내는 통계표이다. 그림 1에서 정책적 내용의 논문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이론적 내용의 논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 2009년 이전의 논문은 정책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그 후의 논문은 이론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의 한국학 연구가 단순한 현상 연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98년, 03년, 06년의 논문은 정책적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 해의 동북아 정세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학 연구자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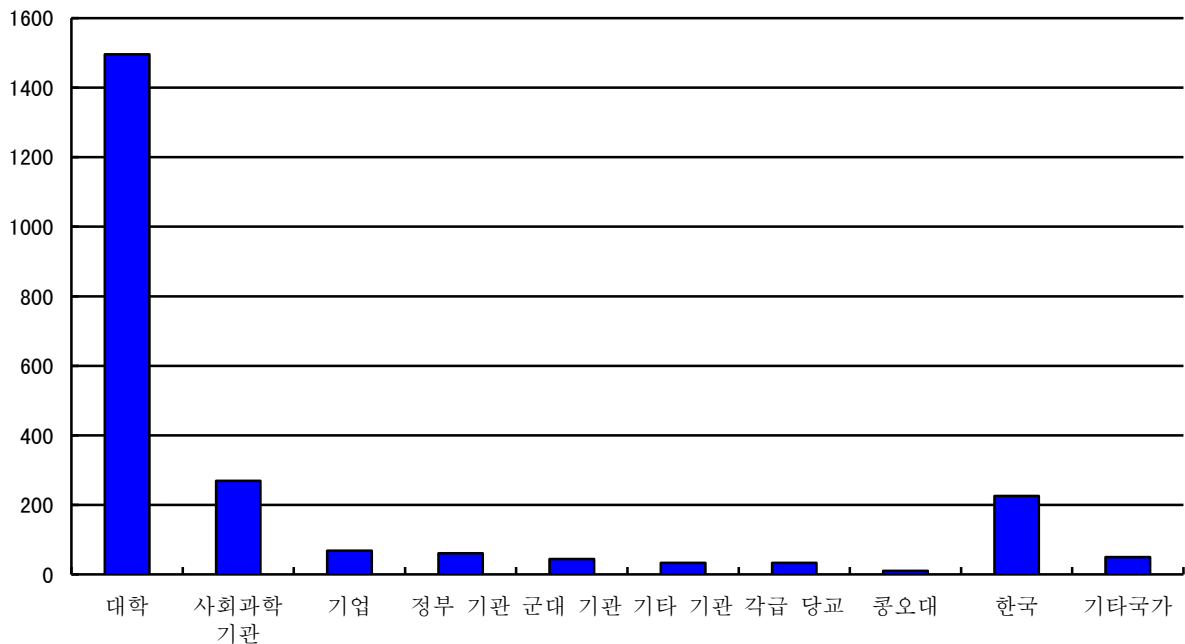
연구자는 학술 연구 활동에서 핵심 요인으로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학술 분야에 있어서 연구자의 규모의 다소는 그 분야 연구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연구자에 대한 분석은 학술 분야나 학과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자에 대한 분석은 주로 연구자의 소속기관,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10개 기관, 연구자의 출신 지역 분포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가.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대한 분석

1992년 중, 한 수교 이래 중국 내에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 본 글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모두 2274명의 연구자(저자)를 검색해 냈다. 그 중에 중국 국내에 1988명, 외국에 286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한국학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표이다. 이 그림을 통해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은 중국 국내 외에 분포되어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 중국 대학의 연구자는 1496명으로 가장 많고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26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외국 연구자 중에 한국 연구자가 가장 많은데 총 226명이다.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순이다.

그림2 연구자 소속기관 분포 통계표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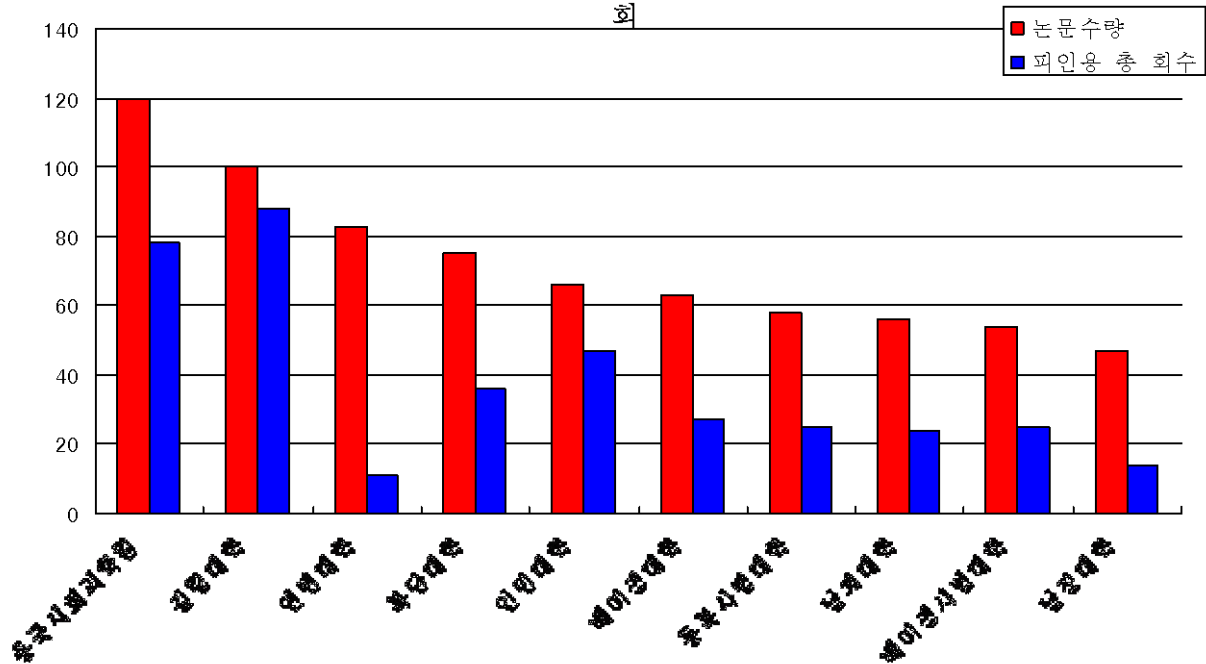


나. 한국학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10개 기관에 대한 분석

최근 한국문제를 관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점점 많아졌다. 그림 3은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10개 기관 통계표이다. 그림 3에서 나타난 10개 기관 중에 대학은 9개, 사회과학연구소는 1개로 나타났다. 지역을 보면 이 10개 기관은 모두 중국의 동부에 있고, 5개는 북경, 천진 지역에 있고, 3개는 길림성에 있고, 나머지 2개는 양자강 하유에 있다. 게재 논문의 량과 질을 보면 이 10개 기관의 연구자는 모두 72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논문 총량의 32.35%를 차지한다. 피인용 회수는 모두 375 회나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논문의 총 피인용 회수의 36.3%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이 10개 기관의 논문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두 다른 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구자는 120편 논문을 게재하여 1위를 차지했다. 길림대학의 연구자는 10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평균 피인용회수도 가장 높다. 이런 상황은 중국의 북경, 천진, 동북지역과 양자강 지역들이 한국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이런 지역이 한국과 밀접한 왕래를 하고 있다는 것과 관계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그림3 한국학 논문 가장 많이 게재된 10개 기관 통계표 단위: 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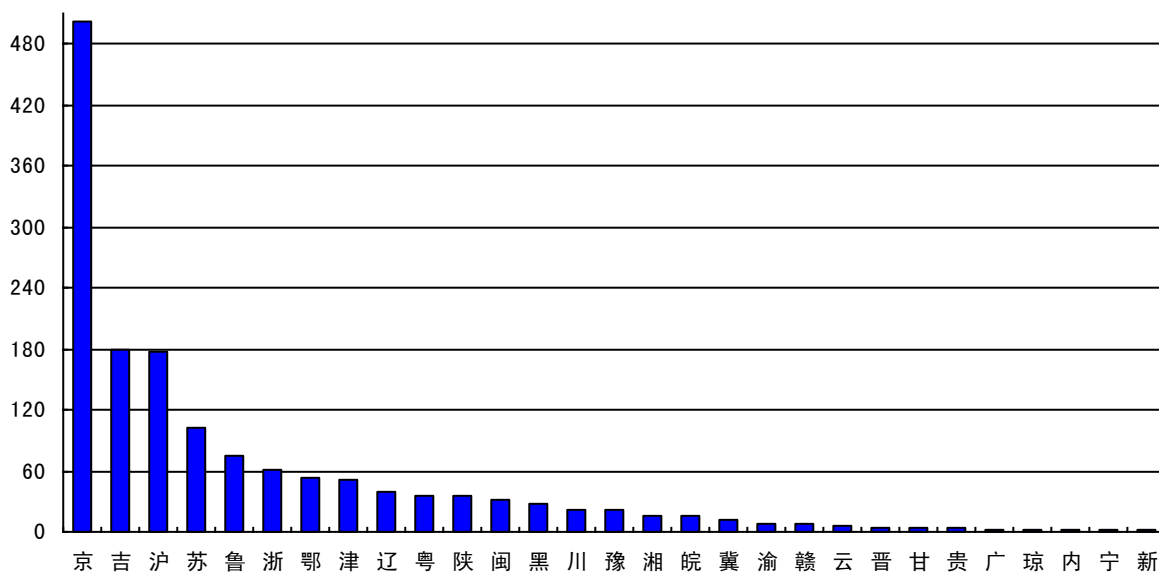


다. 한국학 논문 제1 연구자의 지역 분포에 대한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중국 국내 제1저자 1495명을 검색해 냈다. 그림 4은 한국학 논문 제1 연구자의 지역 분포도이다. 그림 4에서 중국 내의 연구자는 중국의 29개 성, 직할시에서 나오고, 동부부터 서부까지, 연해부터 내륙까지 연구자의 수는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를 통해 북경, 길림, 상해, 절강, 산동의 연구자 수는 각각 1-5위를 차지하며, 총 1036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 연해 지역은 한반도와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중에 북경의

저자가 가장 많은데 모두 502명이나 된다. 반면에 신강, 녜하, 내몽골, 해남, 광서, 감숙, 귀주 등 지역에서 나온 연구자가 많지 않다. 이것은 이런 내륙 지역이 한반도와의 왕래가 많지 않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림4 CSSCI에 게재된 한국학 논문 제1연구자의 지역 분포도
단위: 명



3. 한국학 논문 게재 CSSCI 등재지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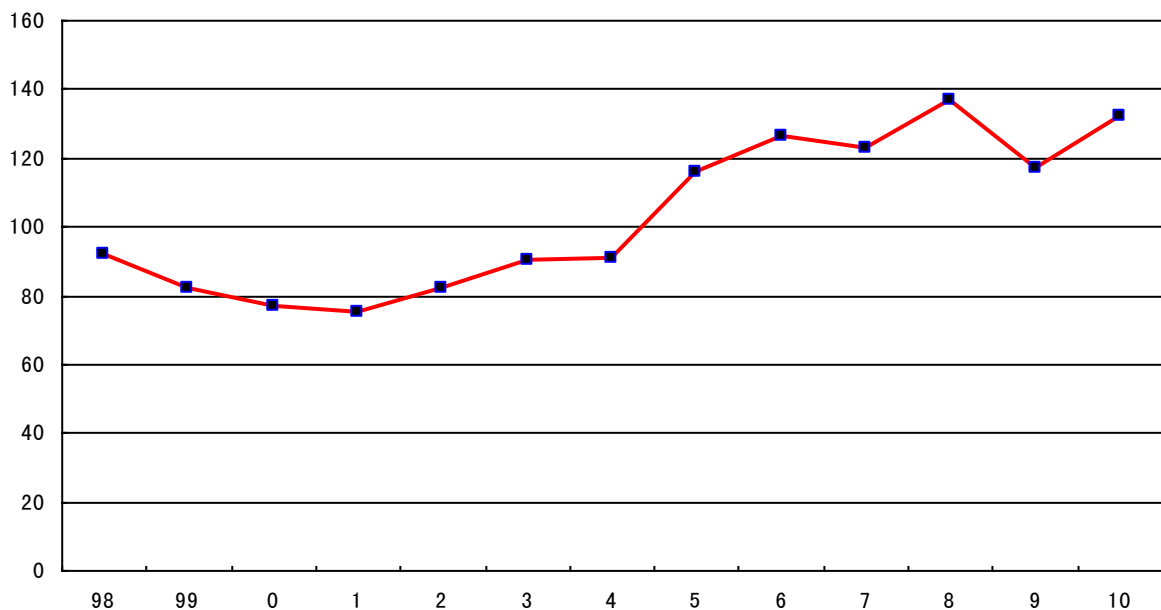
학술 논문 게재 저널은 한 학과나 학술 분야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다. 일반적으로 같은 분야의 학술 논문이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저널들에 의해 게재되면 그 분야의 연구 수준이 더 높다는 뜻이다. 중국 한국학 연구의 현조소를 밝히려면 한국학 논문이 게재된 학술 저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은 주로 CSSCI 등재지 중에 한국학 논문이 게재된 저널의 수량 변화와 게재 편수 변화가 포함된다.

가. 한국학 논문 게재 CSSCI 등재지 변화에 대한 분석

그림 5는 한국학 논문 게재 CSSCI 등재지 종류의 변화도이다. 그림 5에서 나타난 등재지 종류 변화가 표1에서의 연도 논문 수량 변화와 일치된다. 즉

해마다 한국학 논문과 등재지는 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이전의 한국학 게재 등재지 종류는 100종 이하로 나타났지만 2006년부터 100종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2008년은 가장 많아 137종에 달했다. 이것은 중국 국내의 많은 학술 잡지사들은 한국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 한국학 논문 게재 CSSCI 등재지 종류 변화도 단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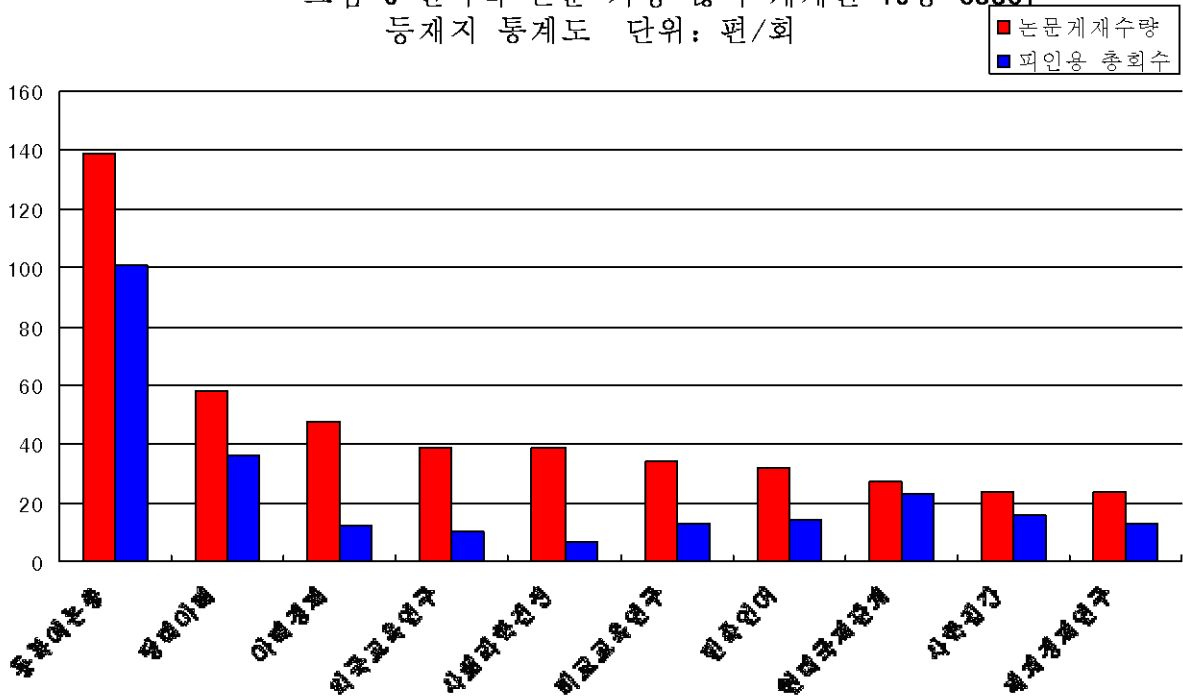


나. 한국학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CSSCI 등재지에 대한 분석

그림 6은 CSSCI 등재지 중에 한국학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10종 등재지에 대한 통계표이다. 데이터를 통해 이 10종 등재지는 모두 한국학 논문을 464편을 게재하였는데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된 논문 총량의 20.79%를 차지한다. 또 이 464편 논문의 피인용 회수는 합계 245회가 되는데 이는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된 논문 총 피인용 회수의 23.72%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 10종 등재지 중에 경제학 분야에 3종, 정치학 분야에 2종, 교육학 분야에 2종, 언어학과 역사학은 각 1종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 보면 10종 등재지 중에 8종은 북경과 길림성에 있다. 이것은 경제, 정치, 교육 등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북경과 길림성이 다른 지역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6 한국학 논문 가장 많이 게재된 10종 CSSCI
등재지 통계도 단위: 편/회



四. CSSCI를 통해 본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의 특징

CSSCI에 수록된 한국학 논문으로 만든 한국학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는 논문의 질과 양, 연구자 분포와 게재 저널 등을 고찰했다. 이런 고찰을 통해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가. (1) 한국학 논문의 총량, 피인용 회수 및 합작논문 수량과 비중은 해마다 증가한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학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내 학술계의 중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 (2) 분석을 통해 중국 내 한국학 연구는 분야별로 발전 불규칙적 특징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 경제, 관리, 역사, 교육 등 분야가 사회의 관심이 많고 이런 분야의 논문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체육, 신문방송, 도서관학, 언어 등 분야는 상술한 분야보다 많이 부진했다. (3) 지금까지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 내용은 대부분이 정책적 내용이 중심으로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연구자가 한반도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나.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자를 보면 (1) 지역으로 길림성, 북경지역, 상해지역 등 지역을 중심으로 3개 연구자군이 형성되었다. (2) 기관 종류로 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연구자군이 형성되었다. (3) 기관별로 중국사회과학원, 길림대학, 복단대학, 연변대학, 중국인민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자군이 형성되었다. (4) 한국을 중심으로 많은 해외 연구자가 있다. 이 밖에 산둥, 하북, 흑룡강, 요녕, 호북 등 지역에도 적지 않은 연구자가 배출되었다. 이렇게 많은 연구자의 출현은 중국 내 한국학 연구에 중요한 인적자원을 제공해주었다.

다. 한국학 논문을 게재한 CSSCI 급 저널의 수량과 게재 편수를 보면 (1) 게재 저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미 CSSCI 급 저널 총량의 1/4에 달했다. (2) 일부 저널은 한국학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어 한국학 연구 성과의 전시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

五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의 발전 추이

동북아 국제 정세의 변화와 중국 대외 개방의 심화 및 중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에 따라 한국학 연구는 중국 내에 지속적인 인기를 이끌어내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가져와 중, 한 교류에 기여할 것이다.

가. 금후에 한국학 연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연구의 방법, 내용, 주제 등은 더욱 다양해지고, 각 분야는 전형적인 발전을 이루며, 한국학 연구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나. 한국학 연구는 연구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중, 한 두 나라의 교육, 문화, 학술 등의 교류에 따라 많은 젊은 연구자가 나타나 한국학 연구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다. 향후 한국학 연구의 심화에 따라 더 많은 우수한 논문이 CSSCI의 최고급 등재지에 게재될 것이고, 또 전문적으로 한국학 논문이 게재된 CSSCI 등재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六. 나오면서

한 중 수교 20주년의 올해까지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는 이미 중국 학술회의 중요한 학술 분야가 되었다. 이 짧은 기간에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는 수많은 우수한 성과들을 배출하여 중국의 대외 개방과 중, 한 친선에 크나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중국 내의 방대한 한국학 연구 자료에 대한 수집과 분석은 부족한 저자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CSSCI에 의해 만든 본 글의 데이터 베이스는 방대한 한국 연구 자료 중의 일부부에 불과하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중국 내 한국학 연구의 현주소를 분석하는데 태부족이지만, CSSCI의 신빙성과 중요성 때문에 본 연구는 여전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중국의 한국학 연구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지만 CSSCI 등재지 중에 최고 수준의 저널에 논문이 게재된 것은 아직 많지 않았다. 그 후에 한국학 연구의 진전에 따라 더 많은 연구자와 학술 저널이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우수한 연구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조문헌

단행본:

沈善洪.韓國研究中文文獻目錄(1912-1993) [M].杭州大學出版社.1994

黃寬重編.中韓關係中文論著目錄(增刊) [M].臺北.中央研究院.2000

沈定昌,劉大軍編.朝鮮半島相關文獻目錄(1992-2005) [M].遼寧出版社.2008

魏志江等著.韓國學概論[M].中山大學出版社。2008

논문

李得春.韓國學與中國的韓國學[J].東疆學刊，2006,23(6)

石源華.中國韓國學研究的回顧與展望[J].當代韓國，2002年春季號.

蔡美花.東亞韓國學方法之探索[J].東疆學刊，2008,25(4).

劉寶全.近三年來中國的韓國學研究—綜述與展望[J].當代韓國，2009年春季號.

邱均平，趙蓉英，馬瑞敏.我國四大引文索引資料庫現狀比較研究[J].中國索引，2006,

4 (3)

蘇新甯，鄒志仁.從CSSCI看我國人文社會科學研究[J].江蘇社會科學，2008年, (2)
